



## 바뀌는 아파트 청약제도

■내집마련 전략은?



## 가점제 도입...나이·가족 많은 무주택자 유리

정부가 민간아파트의 가점 제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새 아파트 청약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아직 구체적인 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공공택지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물론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에 있는 중소형까지 적용될 가능성 커지면서 인기지역의 민영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가점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청약환경이 달라진 만큼 새 아파트 청약 대기자들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양가족 많은 무주택자 우선 = 가점제의 골자는 나이와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가점제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

지만 일단 공공택지내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적용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사실상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기회가 없다고 봐야 한다.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는 적용을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충청권 등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둑여 있어 가점제를 피해갈 곳은 지방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중대형도 안심할 수는 없다. 공공택지내 공공·민영 중대형 아파트도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당첨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20일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25일 공청회를 거쳐 법을 개정,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 25.7평 이하 유주택자는 개편전 청약예금 활용

## 25.7평 초과 신도시·인기지역 적극 노력 볼 만

방침이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부금 기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기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민영 유주택자이거나 나이 어린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은 앞으로 당첨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2008년 이전에 분양한 파주, 충남 아산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인기지역의 분양이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적극 노력할 만하다. 청약예금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될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늦어도 2007년 초까지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면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라면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내 중소형 물량의 최대 75% 까지 먼저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제가 가점제로 전환되면 나머지 25%까지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 기입자

= 서울기준 600만원 이상 청약예금 기입자는 일단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대형 아파트 전체에 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공공택지내 청약제 대상 아파트는 청약제로 같은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유주택자나 핵가족은 9월초부터 청약에 들어갈 교통신도시 등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지역 청약에 적극 기대해야 한다.

◇청약자축 기입자 = 청약자축 기입자는 원래부터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지고 있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 초년생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 예·부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청약자축을 노리는 게 낫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여행수지 60개월 연속 적자

## 유학·연수 제외... 최근 5년 누적적자 198억달러

해외여행 경비로 빠져나간 돈이 5년 연속 여행수지로 벌어들인 금액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해외여행경비 대외지출액은 52억9천600만달러로 작년동기대비 15.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외수입액은 21억5천20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4.5% 감소했다.

이에따라 여행수지 가운데 유학·연수를 제외한 일반여행수지의 적자규모는 31억4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9%나 급증했다. 일반여행수지는 2001년 6월 적자를 기록한 이후 60개월동안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5년간 누적적자 규모는 198억달러를 기록했고 이 기간에 해외여행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548억6천만달러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불어닥친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실적이 소득 증가와 원화강세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 여행 수요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수출입관련 상품수지 흑자가 둔화되고 있어 해외여행경비 증가세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악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5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98억3천5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0.2% 뛸어졌다. 이에 반해 서비스 수지는 해외여행경비 증가 등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3%나 급증한 76억9천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수지는 2001년 4월이후 5년2개월간 480억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관광지 개발을 통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상품수지가 상당히 흑조를 보여 서비스수지 적자를 상쇄했으나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다 보니 경상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출로 번 돈을 해외관광으로 다 써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마철엔 '아쿠아 슈즈'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에서 11일 직원들이 최근 장마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색상의 아쿠아 슈즈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장사 특허취득 공시 급증세

## 을 상반기만 117건...대기업은 공시 안해 신뢰성 의문

을 상반기 상장사들의 특허취득 공시가 전제없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허취득 공시가 기업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어 투자정보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특허공시 급증=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특허취득 공시건수는 117건으로 작년 상반기 57건보다 105% 늘어났으며, 월 평균으로는 작년 상반기의 9.5건에서 19.5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취득 공시를 한 기업 수도 27개사에서 44개사로 6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특허취득 공시가 월별 빈번한 코스닥시장도 상반기 570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6% 증가했다. 월 평균은 65.2건에서 95건으로, 기업 수는 156개사에서 181개사로 16% 늘어났다.

◇특허공사는 '고무줄'=그러나 이 같은 특허취득 공시만으로 기업들의 실제 특허취득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기업들은 취득한 특허를 중요도에 상관없이 모두 공시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특허취득 공시를 아예 하지 않는 등 특허취득 공시에 일관된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정몽구 회장 경영복귀 임박

## 주말께 퇴원...노조 파업 등 현안 행길 듯



지난달 말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 이후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이번 주말께 퇴원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경영에 복귀해 산적한 현안을 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당초 병원에서 예정했던 2주간의 치료가 마무리됨에 따라 회장이 이번 주중 병원에서 퇴원할 것 같다”면서 “병원에서도 2~3일 후에는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이 주말께 퇴원하면 이번 주말과 연휴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르면 다음주부터 경영에 복귀해 현대차의 현안들을 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이 다음 주부터 양재동 사옥에 출근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노조의 파업과 해외 공장 착공 지연 등 산적한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 회장의 업무 복귀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에도 지인을 만나기 위해 양복을 입은 채 병원을 빠져나가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

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보석허가와 함께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뒤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면회한 것을 비롯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및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건강문제 때문에 세세한 현안까지 결재받을 수는 없겠지만 극심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업무에 복귀하면 최우선으로 노조의 파업 문제와 해외 공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 회장의 경영공백으로 연기됐던 현대차의 체코 공장과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착공식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조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은 또 계열사 독립경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투명경영 확보, 사회공헌기금 1조원 환원 등의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민원)	마감일	연락처
호텔프리도	[식음료부/캐셔/객실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654-9999
한국쓰리엠(주)	공무부/생산관리/생산부 오퍼레이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1-330-7012
리서치애리서처(광주지사)	설문지 검토 및 겸용 담당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352-7375
(유)미우	인터넷리더디자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10-9603-2205
㈜한림덴텍	치과의료기기 영업 및 a/s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4	062-251-2872
삼성중공업 건설	Aouto Cad 및 서무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383-5107
INBET(인베트)	웹디자인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15	050-5223-9063
㈜하나콘크리트	경리, 회계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7/15	062-352-7001
엠포시스(주)	기술 개발부 (전자회로 설계 및 개발 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970-3512
H&T이웃상시스템	SK텔레콤 114정규직/CRM 상담원(주5일)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19	062-351-3385
㈜하이팁플러스	대표자 수행(일정관리 및 운전)업무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653-5101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광주은행 지점장급 인사

▲검사부장 오윤상 ▲고객지원부장 양해덕 ▲인사부장 장동춘 ▲고객지원부 부부장 겸 마케팅기획팀장 이광호 ▲여신감리팀장 임문모 ▲e-Biz팀장(Bank4U지점장) 송문섭 ▲강남지점장 이동수 ▲광천동지점장 강충신 ▲금남로지점장 정성우 ▲동광양지점장 김정철 ▲산수동지점장 김봉수 ▲상무버들지점장 정하종 ▲서광주지점장 이승학 ▲서부지점장 신진호 ▲송정지점장 기호장 ▲여의도지점장 최인영 ▲연동지점장 임창일 ▲율곡지점장 김해경 ▲첨단월계지점장 이금철 ▲고객지원부 부부장 김상섭 ▲동부금융지원센터 부부장 겸 심사역 범진욱 ▲서부금융지원센터 부부장 겸 심사역 범진욱



## 포스코 인쇄 무료 시술

포스코가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오리사주 지역의 구순구개열(언청이) 환자 무료 시술 활동에 적극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서울대 치과의사 7명 등 (사) 얼굴성형정보연구소 소속 의료진 13명을 파견, 구순구개열 환자 40여명에 대한 무료 시술활동을 16일까지 펼칠 계획이다.

파견의료진은 이번 무료봉사활동에서 현지 의료팀에게 수술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선진 수술기법도 전수하게 된다. 포스코는 이번 무료봉사활동을 위해 의료진의 항공비, 숙박비 등 체재비를 비롯한 시술비 등 현지활동비를 전액 지원한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오는 9월 ‘아동노동 균열’ 기금을 마련하기 국내 방송사와 함께 기아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0월 국제 해비타트와 함께 인도 오리사, 룸바이 지역에서 ‘사랑의 집 짓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